

지정대본(C)

< 오디션대본 >

※ 오디션대본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!

유진(여/30대) , 준서(남/30대)

바다가 오르간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유진과 준서.

유진 : 십년 전 약속 따위는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이곳에서 널 볼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.

준서 : 원래 나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지.

유진 : (웃음)

준서 : 미안해.

유진, 준서를 보면.

준서 : 그때 내가 비겁하고 바보 같았어. 내가 남자니까 당연히 널 지켜주고, 멋있는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. 근데 나는 그럴 처지가 안 되고.....그래서 너무 찌질하게 굴었어. 너한테 상처만 주고. 미안해.

유진 : 사과해 줘서 고마워. 나도 미안해.

준서 : ...

유진 : 처음엔 우리가 헤어진 게 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.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나 때문이란 걸 알게 됐어. 나는 내 마음만 알았고, 니 마음은 몰랐어. 니가 어떤 처지인지,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. 어쩌면 나는 네가 아닌, 내 열정에만 취해있었던 것 같다.

준서 : 스무 살이었으니까. 너도, 나도.

유진 : 이제야 우리, 제대로 된 이별을 하게 된 건가?

준서 : 이별하는 데 10년이 걸렸네.

유진이 준서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다.